

광주시립미술관장도 '무늬만 공모' 되나

원서접수 시작도 안했는데 '내정설' 퍼져 "특정인, 벌써 운영계획 세우는 중" 소문도

현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광주시립미술관장에 "이미 특정인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형식적인 공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공모를 내고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3~15일로,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오는 22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환영성 전 관장이 사퇴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광주시립미술관장 내정설이 나오는 등 '윤 시장의 사람'이 관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퍼져 공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정인"을 이미 낙점한 자리에 지원했을 때 능력과는 무관하게 '들러리'밖에 되지 않게 돼, 지원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유능한 인재 발탁을 원천적으로 막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높다.

이미 윤 시장이 각종 산하 기관장에 '제 사람 심기'에 나서고 있어, 이번 미술관 관장 선임도 '혹시나' 했던 우려가 '역시나'라는 결론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많아져서다.

특히 미술계 일부 원로와 인사들이 최근 시장의 미술관 담당 간부를 만나 소문의 A씨를 관장으로 추천하는 등 사전 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져 지역 미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A씨는 최근 지역 미술인을 만나 자신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설득 작업을 하는 등 시립미술관 운영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구체적인 소문'이 파다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를 과대평가해주



광주시립미술관 전경.

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제가 윤 시장 캠프에 몸담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같다"며 "이미 선임이 끝났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윤 시장과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립미술관 관장은 윤 시장의 민선 6기 정책과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한다"면서 "공모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고민 중이다'고 답했다."

공립미술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시립미술관이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살펴볼 문제다.

1992년 8월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은 행정직 5급 공무원이 관장을 맡았던 1.2

대를 제외하고는 1996년부터 지역 작가들이 관장을 역임하는 등 사실상 지역 원로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한 '출세우기' '계파 갈등' 문제가 지역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역 작가들을 위한 미술관이 아닌 시민들의 미술관이라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생각이다. 그동안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전시가 주목받지 못했던 것도 '시민'의 입맛보다는 '지역 작가'의 안배를 우선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내년에 개관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유따라 열리는 국제행사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미술인들을 살피면서

국제적인 기획력을 가진 인물이 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 한 미술인은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좀더 공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정책을 펴면 한다"며 "과거 시장들보다 더한다. 똑같은 말이 들릴 정도로 지역 문화계의 실망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미술인은 "지역에서 행정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며 "원로들의 눈치만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계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이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임기는 2년으로 연봉은 5000만~8000만원 상당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교향곡을 플루트 앙상블로 들으면...

에펠드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내일 문예회관

'플루트 앙상블로 듣는 교향곡.' 웅장한 관현악으로만 들던 교향곡 등을 플루트 앙상블로 듣는 느낌은 어떨까.

광주시립교향악단 플루트 수석으로 활동중인 이현경씨가 음악감독과 겸 지휘자를 맡은 에펠드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가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문예회관이 공모한 화요예술무대 선정 공연이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슈베트의 '시인과 농부' 서곡,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오펜바흐의 '강강', 포퍼의 '헝가리안 랩소디 작품 68' 등을 선사한다.

또 박문경(광주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씨가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을,



지휘 이현경 첼로 박문경

프랑스 파리 에펠 노르말에서 수학한 플루티스트 최은영(대신대 출강)씨가 '베니스의 카니발'을 협연하며 에펠드 주니어 앙상블이 미국 민요 '할아버지 시계'를 들려준다.

피날레 곡은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이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10-6631-6834. /김미은기자 mekim@

울 엄마, 꿈 찾아 떠나는 여행

광주문화재단 '경자씨와 재봉틀' 50~60대 참가자 모집

전쟁도 가난도 그녀들에게 포기를 가르지친 못했다. 다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녀들에게서 여자다운 만을 빼앗겼다.

단 한순간도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고 부부막에서 남몰래 눈물만 흘리던 이 땅의 모든 '눈물의 여왕'인 어머니를 위한 이색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광주센터)는 오는 22일부터 11월 14일(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 5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그녀들의 한 때 꿈'을 찾아가는 '울엄마를 위한 문화예술교육-경자씨와 재봉틀'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엄마' '아내' '아줌마' '할머니'로 불렸던 이 땅의 모든 여성이 자신의 이름 '경자 씨'를 다시 찾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센터가 시범운영하는 '경자씨와 재봉틀'은 아줌마와 할머니의 경계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50~60대 여성들이 지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한다.

오는 22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영화 '할머니와 라제리'상영회 및 다과회를 시작으로 모두 여덟 번의 만남을 진행한다. 또 '나의 한때 꿈'을 연극을 통해 이야기하고, 마지막 주에는 1박 2일 여행을 직접 기획해 인생의 시작점을 새로 찍기 위한 여행길에 오른다.

참가를 원하는 이는 오는 16일까지 광주센터에 자신이 '경자씨인 이유'와 '경자씨와 재봉틀'에 참여하고 싶은 사연을 편지로엽서로 적어 보내면 된다. 참가비 무료.

문의 062-670-5764. /오광록기자 kroh@

무등갤러리 소품판매전...30만원 균일가

7~14일 200여점...충장축제 기간 밤 9시까지 개방

무등갤러리(관장 조은경)는 제11회 충장 축제를 맞아 7~14일 특별기획 'Mu Deung Art Festival' 소품판매전을 연다.

이번 소품판매전에는 모두 116명의 작가가 참여해 모두 200여점의 소품을 출품, 판매한다.

모든 작품은 30만원 균일로 판매될 예

정이다. 특히 축제 기간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갤러리가 개방된다.

이번 전시는 참여되어 있는 지역 미술시장의 활기를 찾고, 지역미술인과 시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문의 062-236-252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우환, 세계 경매 성적 '생존 작가' 중 47위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최근 3년 여간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국내 생존 작가는 이우환(78)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세계적 권위의 인터넷 미술 매체 아트넷(Artnet)이 2011년 1월~지난 8월 열린 경매 결과를 집계해 최근 발표한 '생존 작가 톱(Top) 100'에 따르면 이 기간 이우환의 작품 낙찰 총액은 3766만달

러(현재 환율기준 약 400억5000만원)로, 47위를 차지했다. 이우환의 작품은 모두 274차례 경매됐으며,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 작가는 이우환이 유일하다.

1위는 독일 현대미술의 거장 게르하르트 리히터(82)로, 총 낙찰액은 8억5888만 달러(약 9134억2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미국 뉴욕 크리스티경매에서 연

대미술 작품 중 최고가(5840만달러·약 621억1000만원)를 기록한 미국의 팝아트 거장 제프 쿤스(59)는 2억8441만달러(약 3024억7000만원)로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 화가 정판즈(50)는 전체 3위, 아시아 생존 작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중국 작가로는 정판즈 외에도 판정, 추이루쥬, 장사오양, 저우춘야 등이 10위 내에 올라 급성장한 중국 미술 시장의 힘을 방증했다.

연협뉴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